

방학 중 학교관리 필수 정보 ‘한눈에’

도교육청, 여름방학 학교관리자료 도내 학교에 안내… 학생안전·관리 등 부서별 필수 행정사항 담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 여름방학 학교관리자료'를 마련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름방학 학교관리자료에는 방학 중 학생안전과 학생관리, 학교경영·관리에 필요한 각 부서별 중요 정보와 필수 행정사항 등을 담았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우선, 방학을 이용해 진행되는 각종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등의 경우 '기초학력 쑥쑥 테미가 있는 캠프', '중등 교과보충 프로그램', '중등 학습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안내했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일정 및 고입 전형 주요 계획 안내도 담았다. 수능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변경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 까지며, 수시 원서접수 기간은 9월 11~15일까지다.

초등의 경우 취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화 활동 기초학력 보장 지원 프로

그램 운영,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 지도 철저 등을 안내했다.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교는 학교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돌봄 교실은 학부모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운영토록 했다. 특히 8월 개학기부터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되면서 이에 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더불어 여름철 운영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요령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안 발생시 조

치 방안 등도 담았다.

이 외에도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 개학 전후 학교 감염병 예방 대응 방학 중 학생 상담 지원망 등 여름방학 중 학교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안내된 자료에는 각 사업별 담당지자·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 만큼 각 학교에서는 필요시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마닐라시의회 의원 및 마닐라 코리아타운협회 회장단이 18일 전북대를 방문해 글로컬대학 30 사업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선언했다.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 지지합니다”

마닐라 시의원·마닐라 코리아타운협회 회장단 등 전북대 찾아 교류 협약

마닐라시의회 의원 및 마닐라 코리아타운협회 회장단이 18일 전북대를 방문해 글로컬대학 30 사업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마닐라 시의원과 마닐라 코리아타운협회 회장단 각계 인물루언서 등 24명의 방문단은 전북대 양오봉 총장을 만나 필리핀 주요 대학교의 학생 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성공적 유치와 사업 선정을 위한 지지 선언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지지선언문을 통해 “우리 마닐라 시의회는 전북대학교의 글로컬대학 30 사업 선정을 위해 높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온 전북대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마닐라시의회는 전북대와 글로컬대학 30 사업 선정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대는 이날 마닐라 시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서로의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존중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전 세계에 열린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필리핀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한국전쟁 참전 용사 장학금을 마련해 전북대에서 수학하는 후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과 학술 연구 분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7일 양오봉 총장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마닐라 시의회와 마닐라 코리아

타운협회 등과 긴밀한 교류를 약속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현재 15개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됐고 최종 참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마닐라 시의회 의원들께서 방한해 힘을 보태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양 기관의 속도와 협력을 기대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좋은 기억들을 담아 안전하게 귀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이날 전북대 고성캠퍼스 견학을 통해 국내 최고의 한옥건축 교육 현장을 체험하고, 이후 진인군 펜투어에 함께했다. 이어 19일에는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시의회 간 교류를 위한 협상을 나눌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화장품 전문회사와 연구개발·인재양성 ‘손 맞잡다’

전북대, 참존과 협약 체결

최신 기술·보유 시설 공유

학생 대상 현장실습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8일 산학 공동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주)참존(대표이사 염동진)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참존은 1984년에 설립된 화장품 전문 회사로 2개의 자체 연구소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과 R&D 투자로 기능성 소재와 피부 노화 방지 등의 기초 화장품 개발을 체계화 한 기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화장품 최초로 Qマrk 획득, 기내 면세품 등록, IRS2 장영실상 수상, 미국 FDA 허가 및 ISO 인증 등 독보적인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 및 연구 인프라 공유를 할 수 있

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글로컬대학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동진 대표이사는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의 이번 협약은 기업에 있어 좋은 기회”라며 “긴밀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현장실습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나라 기초 화장품의 선두주자이며 2004년 세계 100대 화장품사에 선정된 참존과 산학 공동 연구 및 연구 인프라 공유를 할 수 있

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글로컬대학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동진 대표이사는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의 이번 협약은 기업에 있어 좋은 기회”라며 “긴밀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현장실습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천현 총장은 “양 대학이 인재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18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대·참존 업무협약식.

사업현장의 애로기술도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최신 기술과 보유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유하고 전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도 운영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나라 기초 화장품의 선두주자이며 2004년 세계 100대 화장품사에 선정된 참존과 산학 공동 연구 및 연구 인프라 공유를 할 수 있

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글로컬대학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동진 대표이사는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의 이번 협약은 기업에 있어 좋은 기회”라며 “긴밀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현장실습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천현 총장은 “양 대학이 인재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우유 초유 분리 엑소좀 ‘근감소증 완화 기능’

전주대 강민경 박사과정생

낙농식품용생물학회 ‘최우수상’



전주대학교

(총장 박진 배)는 최근 제86회 한국 낙농식품용 생물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에서 논문 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환경생명식품과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강민경 학생(지도교수 오상남)으로, 우유 초유에서 분리한 나노사이즈 입자인 엑소좀에 대해 근감소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해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강민경 학생은 전주대학교 바이오기능식품학과 졸업 후, 환경생명식품과학과 석사 졸업 시 총장상을 받은 바 있다.

근감소증은 특히 고령인구에서 골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 퇴행성 질환으로써 삶을 위협하고 있는 주요 질환으

로 여겨지기 때문에, 노인의 균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많은 연구가 건강기능식품 소재 발굴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강민경 학생은 “석사 시절부터 연구해 온 주제를 이번 학회에서 발표하게 돼 매우 뜻깊었는데, 최우수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면서 “앞으로도 기능성 식품 연구에 매진해 좋은 연구자로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상남 교수는 “우유 유래의 생물학적 신소재인 엑소좀이 균력을 개선해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 소재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줘 향후, 새로운 낙농 식품의 고부가 가치 식의약 소재 개발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라북도의 고부가 가치 농생명 식품산업의 육성에 지역 학생들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배출과 함께 도내 농식품 수요맞춤형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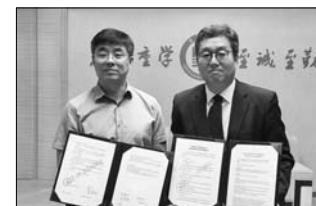
18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전북대·참존 업무협약식.

교육청-지자체 협력 농촌유학 활성화 모색

농촌유학 사업설명회 개최

도내 농어촌지역 소재 학교들

전북 농촌유학 운영 ‘관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농촌유학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지자체 협력

농촌유학 활성화 모색

지단체 간의 소통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 자리에 도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초·중학교 73개교가 참석해 전북 농촌유학 운영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기존 운영하는 농촌유학 운영학교 18곳 외에 희망학교를 추가로 모집해 내년에는 농촌유학 운영학교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에서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기축체류형 가주사 시설 조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마약** 홍보문구 바꾸겠습니다”

전주풍남초 학생대표, 한옥마을 내 매장 편지 전달



생들이 제시한 홍보문구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학생대표 황건하·차노영 학생(6년)은 “우리가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기대한 의심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 너무 뿌듯하다”면서 “좋은 결정을 해준 시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